

이 자료는 2020년 2월 17일(월)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종료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업무보고자료

산업통상자원부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

2020. 2. 17.



목 차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	1
II. 2020년 업무추진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4
1. 튼튼한 소재·부품·장비	4
2. 역동적 신산업	6
3. 혁신적 주력산업	10
4. 깨끗한 에너지	13
5. 활기찬 실물경제	16
IV. 2020년,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뀔니다	23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

1 산업 활력 회복과 혁신투자 확대

- 누구도 흔들 수 없는 **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**
 -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**수급대응지원센터***를 즉시 설치('19.7)하고, **한 건의 수급차질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민·관의 위기 대응력 확인**
 - * 물량확보, 대체 구입처 확보, 생산설비 확충, 금융지원 등 1,700여건 지원
 - 기업간·부처간 협업 본격화, **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*** 구축 등을 통해 **국산화 동력을 확보**하고 **'경제가 곧 안보'**라는 국민인식 확산
 - *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('19.12), 특별회계 신설('20, 2.1조원), 경쟁력위원회 출범('19.10) 등
- 민간의 **과감한 도전과 투자**를 지원하여 **미래 신산업 창출**
 - **시스템반도체**('19.4), **바이오**(5월), **미래차**(10월) 등 핵심 신산업의 **비전과 정부 지원방안**을 제시 → 신산업이 **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** 중
 - * '19년 수출액 : 바이오헬스(88.3억불), 이차전지(74.2억불) → 기존 주력품목인 가전(69.6억불)을 역전
 - * 미래차 보급('16~'19년, 누적) : (수소차) 87대 → 5,083대, (전기차) 10,855대 → 89,918대
 - **지식재산(IP) 금융 규모 1조원 돌파***, **특허 200만호 세계 7번째 달성**, **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운영**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
 - * IP금융 규모(억원) : ('16) 5,774 → ('17) 6,871 → ('18) 7,632 → ('19) 13,504
 - **규제샌드박스***가 '혁신의 실험장'으로서 도전의 기회 제공
 - *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총 39건(실증특례 22, 임시허가 5, 적극행정 12) 규제특례 승인 → 도심 수소충전소,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, 주방공유 등 15건 사업 개시
- **주력산업의 활력 회복과 제도약**을 적극적으로 뒷받침
 - 「**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**」('19.6) 수립·이행을 통해 **조선업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** 등 가시적 성과 창출
 - * 조선 : '19년 수주액(223억불)·수주량(943만CGT) 세계 1위, 세계 LNG 운반선 94% 수주
 - 「**기업활력법**」을 개정('19.11 시행)하여 **자율적·선제적 사업재편 기반** 마련
 - * 법 유효기간 연장, 적용범위 확대(산업위기지역+신산업 추가 등), 인센티브 보강 등
 - **4개 스마트산단 지정**(창원·안산 등), **7개 지역 상생·투자 협약 체결**(광주·밀양 등) 등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**일자리 창출 모멘텀 조성**

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

- **석탄발전 미세먼지의 대폭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**
 - **노후 석탄발전소 폐지, 분철 가동중단·출력제한, 과감한 LNG 전환** 등을 통해 석탄발전 배출 **미세먼지를 '16년 대비 25% 이상 감축**
 - * 석탄발전 미세먼지(톤) : ('16) 30,679 → ('17) 26,952 → ('18) 22,869 ('16년 대비 △25.5%↓)
 - **'16년 대비 태양광 2.5배, 풍력 1.4배 등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**
 - * 태양광 설비용량(누적, MW) : ('16) 4,502 → ('17) 5,835 → ('18) 8,099 → ('19) 11,228
 - * 풍력 설비용량(누적, MW) : ('16) 1,035 → ('17) 1,143 → ('18) 1,303 → ('19) 1,453
 - 「**제3차 에너지기본계획**」('19.6), 「**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**」('19.4) 등 **에너지 전환 중장기 비전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** 제시
- **에너지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** 기회로 활용
 - 「**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**」('19.4) 수립, **새만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**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기반 마련
 - *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('18년 73% → '19년 79%), 셀 수출 증가('18년 1.6억불 → '19년 3.6억불)
 - * (함양에너지농장) 태양광 농가소득 연 3,400만원↑ / (정암육상풍력) 지역주민 20억원 이익 공유
 - 「**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**」 수립·추진('19.1) 등을 통해 **수소충전소 본격 확대,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** 발돋움
 - * 글로벌 수소차 판매('19.1~10월, 대) : (현대) 3,666(비중 60%), (도요타) 2,174, (혼다) 286
 - * 수소충전소 구축('18~'19년 누적 개소) : (한국) 14→54, (일본) 102→112, (독일) 66→81, (미국) 74→70

3 통상 현안 대응 및 무역강국 위상 견지

- **글로벌 무역 분쟁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대**
 - **수산물, 공기압밸브, 세탁기 등 WTO 통상 분쟁에서 연승**
 - **한-영 FTA**('19.6) 등 **3건의 신규 FTA*** 및 **RCEP 협정문**('19.11) 타결
 - * '19년 영국, 이스라엘, 인도네시아 FTA 타결 및 '20.1월 기준 16건(56개국) FTA 발효
- **3년 연속 무역 1조불, 11년 연속 무역흑자, 5년 연속 외투 200억불 달성**
 - **新남방·新북방**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**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**
 - * 新남방·新북방 수출 비중(%) : ('16) 18.8 → ('17) 20.9 → ('18) 21.0 → ('19) 22.6
 - **글로벌 기업 연구개발 거점 유치 및 대기업 유턴 사례** 최초 창출
 - * GM 테크니컬센터 출범('19.1), 스캔라인 아시아스튜디오 개소('19.7), 보잉 R&D 센터 개소('19.11) 등
 - * 유턴기업수(개사) : ('17) 4 → ('18) 9 → ('19) 16 (최초의 대기업·집단 유턴 포함)

II. 2020년 업무추진 방향

2020 비전

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

①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상생으로 “확실한 자립” 실현

- (기술자립)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
- (협력생태계)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
- (전문기업 육성)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

② 역동적 신산업 과감한 도전·혁신으로 “포스트 반도체” 육성

- (Big3+a) 미래차·시스템반도체·바이오 등을 ‘제2의 반도체’로 육성
- (투자 촉진) 지원제도 개편,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 촉진 생태계 조성

③ 혁신적 주력산업 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로 구조 혁신

- (산업혁신) 친환경차·선박,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
- (산업지능화) AI·빅데이터 기반 산업지능화로 제품·서비스 공정 혁신

④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- (수소경제) 수소 생산·유통·활용 선도로 글로벌 1등 국가 실현
- (에너지신산업) 재생에너지, 가스터빈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
- (공급안정·안전) 전력·가스·자원 등 안정적 공급, 수소·ESS 안전관리 강화

⑤ 활기찬 실물경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및 당당한 통상

- (수출) 품목·시장 등 구조혁신과 총력지원으로 수출 플러스 조기달성
- (내수)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, 新유통서비스 확산 → 소비촉진
- (지역) 지역별 대표산업 활성화로 지역 중심의 투자·일자리 창출
- (통상)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, 新시장 개척 → 경제협력 기반 확충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튼튼한 소재·부품·장비

1 개요

- (여건) ‘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마련된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 모멘텀을 가속화하여 ‘확실한 자립’ 실현 필요
- (정책방향) 민관·부처간·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100대 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을 달성하고,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
⇒ (‘20년) 3대 → (‘21년) 20대 → (‘25년)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 달성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 핵심품목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

- ① (기술개발) ‘20년 범부처 2.1조원 예산 지원 → ‘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전 품목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 달성 추진
 - IP R&D* 전면도입(‘20년 500개 과제, 600억원), 해외 M&A 연계형 R&D(‘20년, 42억원) 등으로 신속한 기술개발 및 활용 지원
* R&D 기획·결과물이 특허회피, R&D 기간·비용단축, 특허 선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
 -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(기존 173개 → 223개 품목) 등 기술개발 지원
 -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장비분야는 별도의 기술자립 로드맵 수립(‘20.上)
- ② (생산지원) 평가검증 시설 확충, 기술지원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
 - 15개 공공연구에 100대 품목 평가·검증 테스트베드 구축(‘19~‘20년, 1,500억원)
 - 400개 기업의 신뢰성·양산 평가 집중 지원(‘20년, 600억원)
 - 융합혁신지원단(32개 공공연구) 및 기술지원센터(주요 대학)를 운영하고, 계약학과 확대·해외 인력 유치 등을 통해 전문인력 공급 추진

- ③ (글로벌 협력) 독일·미국·러시아·이스라엘 등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
 - 한·러 소부장 산업협력 대화 신설('20.上), 한·독 소재부품 협력 센터 개소('20.上), 한·독 표준협력대화 등 해외협력 확대
 - 핵심기업 대상 투자유치 TF 구성, 선제적 제안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
 - * 현금지원 한도 확대(30%→40%), 외투자역 임대료 무상 제공 등

2 튼튼한 협력 생태계 조성

- ① (협력모델 확산) '20년중 "20+a개"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 → R&D, 세제, 금융,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(경쟁력위원회 승인)
 - M&A, 공동투자, 기술제휴, 특허 공유, 국제협력 등 협력방식 다양화
 - * CNC(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) : 국내 주요기업 공동투자로 전문기업 설립 → 일본 의존도 93.7%에 달하는 CNC장비를 '24년까지 국산화('20~'24년 818억원)
- ② (특화단지) 핵심 수요-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 지정('20년 1~2개)
 - 용수·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, 기술개발·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 - * 예시 : 반도체 → 용인에 50여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소재부품기업 집적화 추진
- ③ (범부처 협력체계) 확실한 위기관리 및 성과점검 시스템 구축
 - (위기관리) 수급안정 차질시 "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" 등 즉시 실행
 - * 생산계획 수립·변경, 국내 우선공급, 운송·보관·비축·양도, 대체품목 실증 등
 - (성과관리) 품목별 對日의존도, 공급안정화 상황 등 분기별 점검(경쟁력조사)

3 글로벌 공급망(Global Supply Chain) 안정화

- ① (전문기업육성) '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(明匠) 기업' 선정('20.上) → 범부처 R&D, 인력, 자금, 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협업 지원
 - * (R&D) 우선지원 (인력) 출연연구 인력파견, (자금·세제) 투자자펀드 3.5조원, 법인세 공제 등
- 투자펀드(1조원), 융자펀드(2.5조원) 등 해외 M&A 인수자금 공급
- ② (글로벌화) 「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」 수립('20.上)
 - * 새로운 10년의 기술자립 추진 계획, 전문기업 육성 및 대형화 방안,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
- ③ (공급망 다변화)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 확대, 동남아 등 생산기지 다변화 추진

2 역동적 신산업

1 개요

- (여건) '19년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, 주요 신산업 대책* 등을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의 토대 마련
 - * 시스템반도체('19.4), 바이오헬스('19.5), 미래차('19.10), 로봇('19.3) 등
- (정책방향) 미래차·시스템반도체·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시장 선점 → '포스트 반도체' 육성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 빅3 + α를 "포스트 반도체"로 육성

미래차

시장 선도 + 상생협력 → 국민성과 체감 확산

- ① (친환경 대중교통) 수소·전기버스 보급 및 충전소 확대
 - 수소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울산·부산 등 지역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집중 투입('19년 15대 → '20년 195대(누적))
 - 배터리 고효율 전기버스* 등을 중심으로 전기 시내버스 집중 보급('19년 828대 → '20년 1,478대(누적))
 - * 성능이 우수한 전기버스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 개편('20.上, 환경부)
 -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('19년 5,930기 → '20년 7,430기(누적))
- ② (상용차) 소형 전기트럭, 중대형 수소트럭 중심으로 전환 지속 추진
 - 10톤급 수소트럭 본격 생산·수출 개시('20~'25년, 스위스 向 1,600대), 우편 배달용 전기화물차 보급('20년, 우본 1,000대)
 - 청소차·특장차 등 중대형 상용차 수소차 개조 기술개발 착수
 - *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개발('20~'23, '20년 50억원), 수소트럭 개조('20~'23, '20년 60억원)

③ (상생협력)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운영(20.上) → 미래차 서비스 산업 활성화

* 참여 주체 : 자동차사, 부품사, IT사, 보험사, 통신사, 게임사 등

- 수소버스 대·중소기업 생산협업*(20.上) → 중소기업 수소버스 시장 진출

* 현대차의 버스용 수소스택을 중소 버스제조사(우진산전, 에디슨모터스, 자일대우)에 제공 → 수소스택 적용, 수소버스 모델 개발 등 협력방안 마련 추진

④ (자율주행) 자율주행차 시대 조기 실현 → 글로벌 시장 선점

- 서울·세종 자율주행셔틀 실증(19.9~) 지속, 대구는 규제샌드박스와 결합하여 국내 최초 상업운행 서비스* 개시(20.4) → 부산 등으로 확대

*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(19.12) →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2.5km 구간에서 일반인 승객 대상 1일 4회 자율주행셔틀 순환 운행 유료 서비스 실시(20.4~)

-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(부분자율주행) 차량 출시, 자율주행 시범지구 등 테스트베드 조성, 차량통신·정밀지도 등 제도·인프라 구축

시스템반도체

협력생태계 + 과감한 투자 →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

① (상생협업) 파운드리와 팹리스간 협업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

- 파운드리의 공정·기술·인프라 개방* 및 팹리스 수요맞춤형 상생팹** 구축 등 협력·상생 실천사업 본격 추진

*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생산라인 개방, 설계분석 기술 제공, 성능테스트 등 지원

** 팹리스 기업의 제품 양산을 위해 민간·정부 공동 투자로 상시 개방 가능한 웨이퍼 생산라인 구축

② (성장기반) 팹리스 R&D, 기술사업화 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스케일업 지원 → 본격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

-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*(20~29년, 1조원), 반도체 설계자산(IP)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최고 수준 설계·생산기술 및 특허 확보

* 민간수요 및 에너지·안전·국방·교통 등 공공수요 발굴·연계(법무부·국토부 등 협업)

- 팹리스 밀집지역(판교)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* 개소(20.3), 상생펀드 운용개시(1,000억원),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기반 조성

* 사무공간 제공, 시제품 제작, 반도체IP 지원 등 팹리스 원스톱(One-stop) 지원

-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·중시스템 IC 협력센터 구축(20.上, 상해)

③ (투자·생산 확대)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(20.2, 화성),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양산(20.上) →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확대

바이오헬스

생산능력 강화 + DNA 연계 → **신수출 동력화**

① (글로벌 생산기지화) 원부자재, 생산인력·시설 등 바이오 생산능력 확충

- 바이오 클러스터(송도·원주 등), 첨단의료복합단지(오송·대구)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구축

-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 완공*(20.下, 안동·화순), 바이오 생산인력 양성센터 설계 착수(20.上, 年 600명 규모) 등 바이오 생산능력 확대

* (안동) 동물세포실증 시설(984억원), (화순) 미생물실증 시설(836억원)

② (신제품·서비스) 데이터 3법, ICT 융복합 기술 등 활용 → 산업화 본격 추진

-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(2만명) 시범사업, 글로벌 신약 미국 판매 개시 (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), 바이오시밀러·베터 3건 미국·유럽 출시

- 병원 보유 바이오기술 사업화 확산*,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(6건), 디지털 치료제** 등 IT 융합 신제품 실증

*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(IP)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

** 약물 기반이 아닌 모바일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치료제로 약물중독, 불면증 등 치료에 활용

그 외 신산업

이차전지, 지능형 로봇 등

① (이차전지) 미래산업의 쌀 →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은 강화

- 전고체전지* 등 안전성·효율·용량 등이 크게 개선된 차세대 리튬 전지 개발 및 조기 상용화**, 핵심소재 양산실증 등 추진

*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전지로서, 내열성·내구성이 높아 화재위험 낮음

** 리튬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및 기술개발(20년, 47억원)

- 전기차 배터리 대여(리스) 시범사업* 및 배터리 재사용·재활용 생태계 구축 → 전기차 구매가격 절감 실증 및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

* 초기 배터리 비용은 리스사가 부담, 운수업체는 배터리 사용료를 리스사에 지불 →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는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거나, 소재 추출 등 재활용

② (지능형 로봇) AI·5G 기반 제조·서비스 로봇 보급 → 수요 창출 및 산업기반 마련

- 뿌리·섬유·식음료 등 업종별·공정별 작업환경 개선로봇 보급 확대 (19년 90대 → 20년 500대) 및 AI·5G 기반 성능평가 및 실증연구센터 구축

- 물류·돌봄·의료·웨어러블 4대 분야 서비스로봇 보급 대폭 확대 (19년 271대 → 20년 1,000대)

2 과감한 투자 촉진 생태계 조성

- ① (투자지원)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편
 - 「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」 수립('20.上) → 외국인투자를 우대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**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지원**하도록 전면 개편
 -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·확정 및 규제특례 부여,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「경자구역 혁신전략」 수립('20.上)
 - 산단 등 지방투자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**완화**('20.上)
 - * (현행) 지원 대상 열거방식 → (개선)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
 - 신산업 중심 **30개 투자 프로젝트*** 집중지원(민관합동 투자지원단)
 - * 시스템반도체 설비 증설, 연료전지 스택공장 및 전기차 부품공장 등
- ② (규제개혁)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의 양적·질적 업그레이드 추진
 - AI·빅데이터, 바이오, 모빌리티 등 핵심규제 집중 해소
 - 승인과제의 **조속한 사업개시**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
 - * 기술·인증 기준 개발, 제품 성능·안전성 개선 신규 지원('20~, 42.6억원) 등
- ③ (R&D) 도전·속도 지향형으로 산업기술 R&D 혁신
 - 도전형 기술개발(알키미스트 프로젝트)을 **2배 확대**('19년 61억원 → '20년 118억원)하고, 기존 사업에도 **챌린지 트랙**을 신설하여 도전적 과제 확대
 - 정부 최초 R&D 전용 펀드 조성*('20.上, 4,000억원), 「R&D 혁신방안**」 수립('20.上)
 - * 기존 출연방식이 아닌 산업 R&D 자금 전담은행들이 출자한 펀드를 통해 R&D 투자 실시
 - ** 도전적 R&D의 확대,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, 서비스·공정 R&D 확대 등
- ④ (사업재편) 개정 「기활법」('19.11 시행) 활용 → 신산업 진출 기업 적극 지원
 - 자율주행차·AI 등 신산업 관련 사업재편 사례 적극 창출
 - * (A기업) 블랙박스, CCTV 제조 사업 → 미래차·시스템반도체 설계 사업 신규투자

3 혁신적 주력산업

1 개요

- (여건) 반도체·조선 등 일부 업종의 **업황 회복***이 예상되나, 자동차·철강·석유화학 등은 **글로벌 수요감소**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
 - *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규모(억불) : ('19) 1,097 → ('20) 1,249 (13%↑)
 - * 조선 세계발주량(CGT) : ('19) 2,529만 → ('20) 3,150만 (25%↑)
- (정책방향) 친환경 선박, OLED 등 **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**을 가속화하고, 업종별 **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**를 통해 고도화
 - AI·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**산업지능화 추진** → **新제품·新서비스 창출**, 공정 혁신 등 **제조업 업그레이드**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 주력산업 고도화

조선

환경규제 대응 + DNA 접목 → **친환경스미트 선박 선도국 도약**

- ① (친환경) LNG 추진선 **2배 이상 확대**, 아시아 최초 LNG병커링 선박 운용('20.上), 「친환경선박 개발·보급 기본계획」 수립('20.下) 등 추진
 - * 국내 LNG 추진선 : ('18) 2척 → ('19) 4척(+9척 건조중) → ('20) 10척 이상 추가 건조 추진
- ② (자율운항선박) 지능형 항해시스템, 성능실증센터 구축 등 본격 기술개발 착수('20~'25년, 1,603억원)
- ③ (스마트조선소) 중소·중견조선소 생산성향상, 선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AI기반 **한국형 스마트조선소(Smart K-Yard) 기술개발** 추진
 - * 예비타당성조사 추진(~20.3) : (사업기간) '21~'26년, (사업비) 총 3,860억원(국비 2,765억원)
- ④ (상생·협업) 업계 주도로 「조선산업 생태계 재건 및 미래발전방안*」 수립('20.上)
 - *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('19.5~)

철강

AI 접목 + 친환경 공정 도입 → 고부가 철강 확대

- ① (AI·융복합) AI 선도공정(포스코) 확산, 고부가가치 금속 생산을 위한 AI·빅데이터 기반 설계 기술개발, LNG탱크 신소재 상용화 등 추진
- ② (친환경 공정) 슬래그 등 철강 생산 부산물 재활용 기술 확보, 수소 환원제철 공법,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등 → 환경규제를 기회로 활용

섬유

신기술 적용 + 소비자 취향 저격 → 스마트 섬유로 탈바꿈

- ① (스마트 제조) 봉제·염색 등 소규모 맞춤형생산(스피드팩토리)이 가능하도록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라인을 구축하고, 동대문 복원 프로젝트* 추진
* 디자이너·원단·염색·봉제 업체들과 판매업체간 온라인 발주·생산시스템 구축('20년, 23억원)
- ② (신시장 창출) ICT융합 개인맞춤 시범매장('19.4 오픈, 동대문 Within24)에 이은 ICT융합 남성정장 상설매장 구축('20.上, 부산)

가전

AI 및 IoT 융복합 →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진화

- ① (혁신기반) 도심지역내 전자혁신제조 지원 플랫폼* 구축 등 추진, 대기업 전·현직 전문인력 활용 가전산업 지원단 구성('20.下)
* 빠른제조 → 사용자반응 환류 → 스케일업 등 가전·전자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
- ② (스마트화) 가전 빅데이터 공동 수집·분석·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, AI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의 제품기획·기술개발을 지원

석유화학

대규모 투자 + 첨단 소재 확대 → 후발국 추격 회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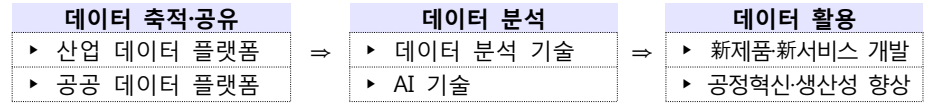
- ① (대규모 투자) 17.8조원 규모(~'24)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·용수·폐수처리·전력공급 등 제반 인프라 적기 지원
- ② (첨단 소재)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, 선진 기술도입을 위한 해외 M&A 확대

디스플레이

고수익 패널 투자 확대 + 협력 생태계 → 세계 1위 수성(守城)

- ① (협력 생태계) 선도기업의 대규모 차세대 패널 투자*와 연계하여 공동기술개발, 성능평가 등 장비산업과의 협력 생태계 강화
* (삼성디스플레이) '25년까지 13.1조원 투자, (LG디스플레이) '22년까지 3조원 투자
- ② (기술개발)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·장비 기술개발, 중소·중견기업 신기술 검증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착공('20.下, 천안)

② 산업 지능화



<기반 조성>

산업 지능화 특별법 제정 + HW/SW 기술개발+ AI 인력양성

- ① (데이터 축적·공유)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및 민간 데이터 축적·활용 확산
 - 5대 부문 공공 데이터 플랫폼 구축 →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
* (정부) 에너지표준특허시험인증무역 데이터 공개 → (민간) 공공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구상
 - 업종별 문제해결형 민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 → 산업 데이터 축적·활용
* 업계 비즈니스모델 기반의 데이터 수집 + AI 접목 → 공장·제품·서비스 혁신 및 문제 해결
*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: ('20) 10개 (자동차·섬유·소재·가전 등) → ('30) 30개
- ② (데이터 분석·활용) 新제품·新서비스 개발, 공정혁신 등에 활용
 - AI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차, 자율선박 등 지능형 新제품 개발
* (자율차)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융합 기술개발·실증
* (자율운항선박)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
 - 공공·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홈, 헬스케어 등 新서비스 확산
* (스마트홈)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개발, (헬스케어)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창출
 - AI·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선·철강 등 생산공정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
* (조선) 5G,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는 한국형 스마트조선소(Smart K-Yard) 구축
* (철강) 용광로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 수집, AI를 적용하는 용광로 구축
- ③ (기반 조성) 법령 정비, 추진 체계 마련 등 산업 지능화 기반 구축
 - 「산업지능화특별법(가칭)」 제정 및 산업 데이터 얼라이언스 출범·가동('20.上)
 - 산업데이터 코드·포맷 등 표준화, 데이터 유형별 제공자-활용자간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마련('20.下)

4 깨끗한 에너지

1 개요

□ (여건) '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산'이라는 전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면서,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친환경 에너지 전략 마련

* 에너지전환로드맵('17.10), 수소경제로드맵('19.1),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('19.4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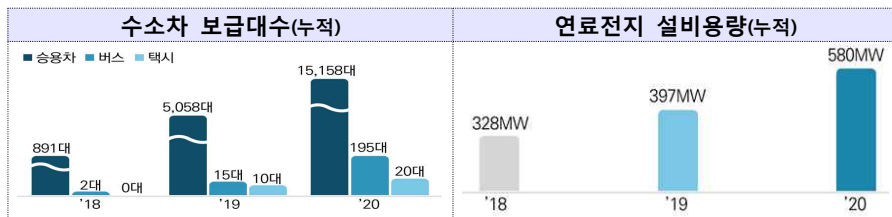
□ (정책방향) 에너지전환을 수소·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→ 국내시장 확대 및 성장동력화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 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

① (활용)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활용 →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

○ 수소차 1만대 이상을 신규 보급하고 연료전지 발전도 확대



○ 수소 승용차 이외 트럭, 드론, 연료전지 등 신규 수출시장* 창출

* 승용차 수출(대) : ('18) 222 → ('19) 788 → ('20) 1,000

* (트럭) 10톤급 70대 최초 수출 개시(~'25년, 1,600대), (드론) 연내 중국·미국 시장에 300만불 수출 목표, (연료전지) 중국 시범도시 내 10MW 공급 계약 추진 등

○ 연료전지선박, 액화수소 운반선*, 지게차, 건설장비** 등 활용모델 다각화

* 미래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개발 예타 추진('20.2분기) : (사업기간) '21~'30년 (사업비) 총 6,000억원

** 건설중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·실증 신규 추진('20년, 20억원)

② (생산·공급) 수소충전소 대폭 확충, 수소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인하 추진

○ 도심 중심 수소충전소 신규 100기를 구축하고 기존 충전소 증설도 추진

* 수소충전소 개수('19→'20년, 누적) : ('19) 54기 → ('20) 154기

* 신규 입지확보가 어려운 서울, 인천 등 대도시에 기존 충전소 증설(약 4기 내외)

○ 권역별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인근 충전소와 유통망 형성

* 중대규모(수소차 1천대/일) 2기, 소규모(수소차 200대/일) 5기

○ 부생수소 유통망 구축*을 통한 충전소 수소공급가격 25% 인하

* 『①생산(제철소, 2천톤) → ②운송(물류기업) → ③공급(전문기업)』 간 협업체계 구축

③ (안전) 수소 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 → 국민이 안심하는 수소경제 추진

○ 3대 핵심시설(수소충전소·생산기지·연료전지발전소) 정밀안전점검 실시('20.上), 글로벌 수준의 수소설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*('20.下)

* 주요 내용 : 수소법 제정에 따른 저압 수소용품·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, 수소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, 對국민 안전홍보 강화 추진 등

○ 수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3개 분야* 국제표준화 선도('20.下)

* ①수전해 수소발생기 분리막 평가방법, ②통신 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, ③노트북용 마이크로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 및 성능

2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① (재생에너지 확산) 새만금 태양광, 제주 한림 해상풍력*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 연내 조기 착공 추진(2.3GW, 3년간 11조원, '20년 1.9조원)

* 새만금에 총 3GW규모(태양광 2.8, 풍력 0.1, 연료전지 0.1)의 발전설비 조성(6.6조원) → '20년부터 육상태양광 0.1GW, 수상태양광 0.3GW 등 단계적 착공 착수

* 제주 한림을 앞바다에 국내 최대규모(100MW급) 해상풍력 단지를 국내기술로 조성(5,500억원) → 대규모 국내 사업추진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전기 마련

○ 지역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기준 마련('20.上), 발전공기업의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, 주민참여형 협의회 운영 등 추진

-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책협의회 개최, **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**(‘20.2) 등 지원
- 태양광 설비 **탄소인증제*** 및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(‘20.1, 17.5%) 실시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주도 脫탄소 추진
 - *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 (‘20.上 사전검증 → ‘20.下 정부보급사업 등에 시범적용)

② (가스터빈) 전량 해외 의존*하고 있는 발전용 LNG 가스터빈 자립화 추진

- * 국내 가스터빈(기) : (MHPS) 39(12기 두산 라이선스조립), (GE) 39, (WH) 28, (지멘스) 27, (알스툼) 20
- 국내 LNG 가스터빈 모델(S1*) 개발완료(‘20.上) → 노후 발전소 (김포 열병합 등)를 단계적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(‘23~)
 - * 정부지원 및 산학연 공동 R&D 연구(13.7~20.3, 2,065억원)를 통해 개발(출력 270MW, 복합효율 60%)

③ (에너지융복합단지) 지역특화 에너지산업과 연계하여 추가 지정(‘20.下)

-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거점 및 클러스터로 육성
 - * ‘19년 2개소 지정(새만금, 광주·전남)
- 에너지 특화기업 범위확대,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* 등 단지 조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병행
 - *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, 정부 R&D 참여시 가점 부여,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

③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안전 강화

- ① (안정적 에너지 공급) 「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」, 「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」, 「자원개발 기본계획」 등 수립
 - 석유수급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자원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
- ② (에너지 안전) 「에너지시설 관리계획」 수립(‘20.6), 지하 기반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(‘20.上), 수소·ESS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추진

5 활기찬 실물경제

1 개요

- (여건)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개선이 전망*되나,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

* IMF 세계경제성장 전망(‘20.1, %) : (‘19) 3.0 → (‘20) 3.4

- (정책방향) 실물경제 활력 회복 및 당당한 통상환경 구축에 총력
 - (수출) 품목·시장·주체 등 구조혁신, 신남방·신북방 성과 극대화, 역대 최고수준의 지원 → 수출 플러스 조기 달성
 - (내수)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, 新유통서비스 확산 → 소비촉진
 - (지역)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→ 지역 중심의 투자·일자리 창출
 - (통상)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, 新시장 개척 → 경제협력 기반 확충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① 수출 플러스 조기 실현

- ① (품목혁신) 주력업종 회복 + 신산업 중심 구조전환 + 대형플랜트 수주
 - (주력산업) 반도체 업황 회복 대응 신규라인 가동, 조선 환경규제 (IMO 2020) 활용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* 등 수출 회복에 총력
 - * LNG선 대규모 발주 예정 : 카타르(40~60척), 러시아(10척) 등
 - (신산업) 바이오·이차전지·친환경차·OLED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 가속화 → 新품목 수출비중 10% 최초 돌파
 - * 新수출성장동력 품목 비중(%) : (‘17) 7.5 → (‘18) 8.0 → (‘19) 9.2 → (‘20) 10% 이상
 - (서비스·소비재) 의료·콘텐츠·뷰티 등 → 한류 활용 글로벌 진출 활성화
 - *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수립(‘20.上)
 - (대형 플랜트 등) 정상외교 성과 등 활용 대형 프로젝트 수주 → 동반수출(건설·금융·기자재 등) + 동반진출(대·중소기업) 추진
 - * 인도네시아 정유공장건설, 모잠비크 LNG 증설 등 11건(686억불 규모)

② (시장혁신) **新남방·新북방**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

- (신북방) **러시아 수교 30주년 계기 활용** → 쇠빙 LNG선 공동건조 10척 추가 계약, 미래 신산업 협력, 9-브릿지* 성과 창출 노력

* 한-러 9개 중점 협력분야 : 전력, 가스, 철도, 농업, 수산, 북극항로, 항만, 조선, 산업단지 →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및 특수선 공동건조, PNG 협력 공동연구 등

- 정상 순방 후속조치로 중앙아 주력산업 및 인프라 진출 확대

* (우즈벡) 부하라 정유공장 계약체결, (카자흐) 현대차 조립공장 양산 개시 등

- (신남방) **한-인니 CEPA, RCEP** 등 신남방 FTA를 토대로 신남방 교역 2천억불 시대 견인(『新남방 무역확대 전략』 수립, '20.下)

- 수출 애로해소·경제협력 등 지원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, 베트남·인니·미얀마 등을 **新남방** 거점 시장으로 확보

* ('20년)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(베트남, 인니, 인도) 및 Korea Desk(미얀마) 신설 → ('21년) 한-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→ ('22년)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

* (인니) 현대차 공장 착공, 포스코 열연공장 증설 완공, 롯데케미칼 플랜트 증설 착공 등

③ (주체혁신) 거래처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 저변 확대** → **중소기업 수출 비중 20%** 최초 달성

* 중소기업 수출 실적비중(%) : ('18) 17.4 → ('19) 18.8 → ('20) 20% 이상

-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패키지 신설('20.1분기), 초보·내수기업 특화 수출 지원* 강화 등 추진

* 전문무역상사와 매칭 상담회, 코트라-공유오피스(WeWork) 협업, 무역 전문인력 양성(5,500명) 등

④ (총력지원)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지원수단을 신속히 가동

- (무역금융) **역대 최대인 257조원** 공급 → 상반기 중 60%(154조원) 집행, 신남방·신북방 등 **신흥시장 수출 지원 강화**

* 무역금융 규모(조원) : ('17) 222 → ('18) 223 → ('19) 232 → ('20) 257

* 신흥시장 지원('19→'20년) : (신흥시장 진출 무역금융) 6.2조원 → 7.7조원, (신남방 등 진출 무역보증) 250억원 → 1,000억원

- (해외마케팅) **5,112억원 지원**(‘19년 대비 14.4% ↑) → 수출바우처,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대폭 확대, 전시회·무역사절단 대형화

* 마케팅 지원('19→'20, 억원) : (수출바우처) 260 → 410, (글로벌 파트너링) 50 → 93

** CES-MWC 등 글로벌 유명 전시회 통합 한국관 구축, 전략무역사절단 신설(82회)

- (디지털 무역) 기업 수출 소 과정을 지원하는 **디지털 무역 플랫폼** 구축,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추진

* 디지털 무역 플랫폼(uTH 2.0) 1차 가동('20.4),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가동('20.上)

② 내수 활성화

① (코리아 세일페스타) 민간 주도 대규모 쇼pping행사의 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

- 세일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, 국제배송료 할인 등 소비자 체감 할인을 제고를 위해 정부 가용자원 최대 동원

② (신유통 서비스) 유통 빅데이터 구축 등 유통혁신을 위한 **인프라 조성**

- 누구나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**상품정보 표준DB 구축**(‘20년 100만개), 소비자 구매데이터 분석·예측시스템 구축 등 **신유통 서비스 창출** 촉진

* 상품정보, 비식별 구매정보 등 유통데이터 구축 → 맞춤형 매장 관리, 발주재고관리 등에 활용

- AR·VR 기반 온라인 쇼pping 적용 프로그램 개발,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한 위조상품 선별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유통 활성화 지원

③ (예산 조기집행) 산업부 예산 총 8.1조원* 중 1분기 3.3조원(41.2%), 상반기 5.5조원(67.9%) 조기집행을 통해 실물경제 수요창출 지원

* 산업부 전체 예산 9.4조원 중 인건비, 기본경비,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기준

③ 지역경제 활성화

① (지역 전략산업)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

- 국가혁신클러스터* 내 대규모 R&D사업 추진('20년 546억원), 클러스터별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 수립('20.下)으로 **신산업 활성화** 기반 조성

* 국정과제에 따라 균형위 의결('18.10)을 거친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('18.11 지정)

* 예시 : (충남) 수소에너지, (전남) 에너지신산업, (경북) 전기차 부품, (부산) 해양CT 융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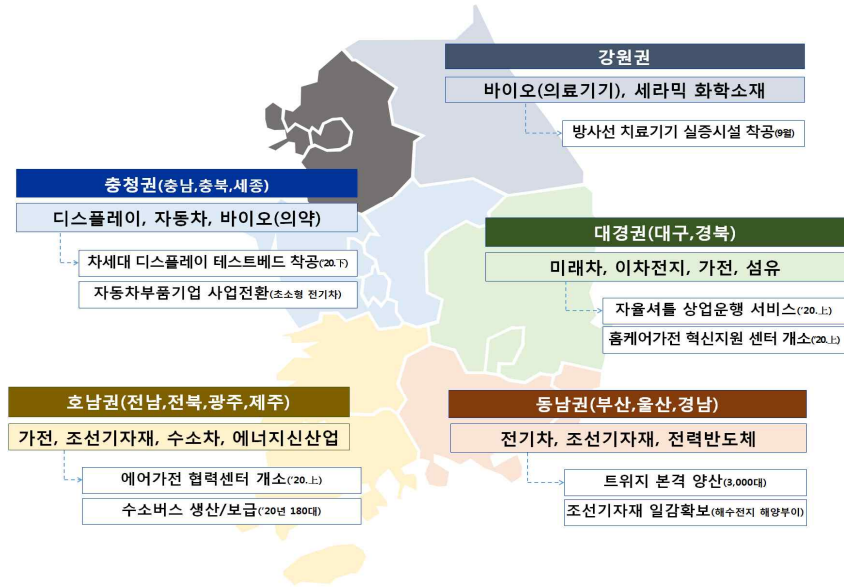
- 지역 전략산업별 특화 장비구축, 전문인력 양성, 기술지원 등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('20년 567억원)

② (지역 활력회복) 일감확보, 노후산단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활력 회복

- **14+7 지역활력 프로젝트 확대** ('19년 14개 → '20년 7개 신규 추가) → 조선·자동차부품 등 **일감확보·사업전환** 등 중점 지원('20년, 185억원)
 - * 7개 신규프로젝트 : 강원(강릉·반도체용 세라믹, 춘천·방사선치료기기), 울산(자동차부품, 해수전지), 충남(천안·자동차부품, 당진·디스플레이 소재부품), 충북(오송·바이오)

- **스마트산단 추가 지정** ('19년 4개 → '20년 7개(누적)) → 지역별로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투자 붐 확산

<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>



③ (상생형 일자리) 재정·세계·금융 등 패키지* 지원 본격화

* 투자세액공제,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,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* ('20.4 시행)에 맞춰 기존 상생·투자 협약 체결지역(광주·밀양 등) 대상 **법정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·지원**

* 주요내용 :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념, 선정 절차, 정부의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

④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및 경제협력 기반 확충

① (리스크 관리) 보호무역 등 통상 현안 적극 대응으로 국익 사수

- (보호주의) 민관공조 하 양자·다자채널* 등을 통해 반덤핑·보조금 등 주요국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 →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
 - * 미국·인도·EU·중국 등과 무역구제 협의회, WTO 반덤핑·보조금·세이프가드 위원회 등
- (통상현안) 자동차 232조 등 주요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공동위('20.上)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추진

② (신시장 개척) 신남방·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FTA 확대

- (신남방) '20년중 RCEP 서명'에 적극 기여하고, 한-필리핀 FTA 타결 및 한-인도 CEPA 개정 추진으로 신남방 수출확대 전기 마련
- (신북방) 한-러 서비스·투자 FTA 가속화 및 한-EAEU* FTA로의 확대, 우즈베크·몽골과의 FTA 검토 등을 통해 유라시아 진출기반 구축
 - *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관세동맹
- (중남미·아프리카) 메르코수르, 태평양동맹*과의 FTA 협상 진전 및 아프리카 거점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해 신시장 개척
 - * 멕시코, 칠레, 페루, 콜롬비아 등

③ (新통상이슈)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익을 반영

- (규범선진화) WTO 전자상거래 협상*, 수산보조금, SPS 등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인 국내제도 정비
 - * 우리나라, 미국, EU, 일본, 중국 등 총 83개국 참여
- (WTO) 상소기구의 조속한 정상화 등 WTO 개혁논의 적극 참여, 개도국 협력·지원사업* 등을 통해 WTO 다자체제 복원·강화에 기여
 - * WTO 사무국과 협조 → 개도국공무원 초청 교육사업 추진 (上·下반기 각 1회)

④ (대응체계) 민관합동 통상현안 사전대응 시스템 본격가동

- 통상 정보제공·현안연구 등을 수행하는 통상지원센터 신설('20년, 15억원) →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민관의 선제적 대응 추진

5 코로나19 대응

□ 현황

- ❶ (현지 기업) 중국에는 3,679개사 진출, 우한지역은 29개사 진출(KOTRA 집계)
- ❷ (수출 기업) '19년 對中 수출은 1,362억불, 對후베이성 비중은 0.3%
 - 다만, 춘절 연휴 연장과 감염 확산에 따른 가동 차질 및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우리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* 우려
 - * '03년 사스로 중국 GDP 0.2%p ↓(ADB), 중국 GDP 1%p 하락시 수출 1.74%p 감소(한은)
- ❸ (소재·부품·장비) '19년 對中 수입 1,065억불 중 소·부·장은 537억불(50.4%)

□ 대응방안

< 단기 >

◆ 日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수출·산업현장 어려움 적극 해소

- ❶ (대응 체계) 「신종 CV 비상대응TF」 가동,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
 - * (반장) 산업부 차관, (운영) 총괄반, 기업상황점검반, 실물경제점검반, 대외협력반
 - (국내) ①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(업종별), ②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** (수출기업)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
 - * ①업체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·애로해소, ②무보·코트라·중진공·수은 협업으로 애로해소
 - (중국) 코트라 무역관(22개) 등을 통해 물류·통관·인력 등 밀착 지원
 - * 대사관(상무관), KOTRA 무역관(중국 內 22개), 무역협회 지사, 무역보험공사 지사 등 협업
- ❷ (수출 지원) 수출 플러스 조기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영향 최소화
 - (무역 금융) 對中 수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경우 ①신속보상, ②한도우대, ③수출 다변화, ④유동성 지원 추진

구분	지원사항
① 신속보상	· 중국지역 수입자 미결제로 무역보험 사고발생 시 보험금 가지급제도 (최대 80%) 등을 통해 신속 보상(보험청구 후 2개월 이내 → 1개월로 단축)
② 한도우대	· 중국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수입자 책정 가능한도의 최대 2.5배까지 우대
③ 수출 다변화	· 중국외 지역으로 수출거래처 변경 시, 신용조사보고서 연간 5회 무료 제공
④ 유동성	· 신용보증한도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한도 감액 없이 보증기간 연장

- (수출 마케팅) 현지 동향 및 기업 의향을 고려해 취소된 전시회 계획 변경 및 무역 사절단 파견지역 변경 등 지원
- ❸ (소재·부품·장비) 공급망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및 대응
 - 자동차부품 등 중국 內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주요 품목은 국내 업체의 생산·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
 - 중국 현지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외협의 강화, 신속한 물류 및 통관 지원, 국내 대체생산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
 - * 중국공장 생산 부품의 한국 수입시 서류제출·검사선별 최소화 및 24시간 통관, 피해우려 중소·중견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,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

< 중장기 >

◆ 산업 공급망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·추진

- ❶ (분석)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(Global Supply Chain) 분석
 -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업종별·품목별 주요국 의존도 등을 파악하고,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등을 분석
- ❷ (전략) 국내생산 확대, 공급망 다변화, 글로벌화 등의 전략 수립·추진
 -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외 기업 국내 유턴 → 국내생산 확대
 - 중국 외 동남아 지역 등으로 생산기지 확대 → 공급망 다변화
 -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활용 →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

IV. 2020년,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

1️⃣ 튼튼한 소부장 협력과 상생으로 “확실한 자립” 실현

- ▶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
- ▶ 9개 품목 자체기술 확보

2️⃣ 역동적 신산업 과감한 투자·혁신으로 “포스트 반도체” 육성



3️⃣ 혁신적 주력산업 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로 구조 혁신



4️⃣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

5️⃣ 활기찬 실물경제 실물경제 회복 및 당당한 통상

